

황성규 제2차관, “방역 사각지대 없는 철도 안전망 구축에 만전”

- 30일 용산역 찾아 방역실태 점검·모범방역 현장 위해 지속 노력 당부 -

- 황성규 국토교통부 제2차관은 7월 30일(금) 용산역을 방문하여, 코로나-19 방역실태를 점검하고, 연일 계속되는 폭염에 대응하여 철도시설 관리와 열차운영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하였다.
- 황 차관은 한국철도공사로부터 방역안내원 상시 배치를 통한 발열 측정과 마스크 착용 계도, 선별진료소 설치를 통한 의심자 검사 지원 등 강화된 철도방역대책을 보고받은 자리에서,
 - “용산역은 수도권 대표 관문역 중 하나로 KTX, 무궁화호, 광역 전철 등 다양한 열차가 운행하고, 하루 이용객이 약 6.2만명에 달하는 주요 철도역사”라고하면서,
 - “국민들이 안심하고 탈 수 있는 안전한 철도환경을 위해 경각심을 갖고 방역태세에 만전을 기해 달라”고 당부했다.
- 아울러, “7월초부터 전국적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철도 시설 및 열차 운영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시설물과 차량을 꼼꼼히 점검하고, 피해 발생 시 신속히 응급 복구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토록 최선을 다해달라”고 강조하였다.
- 이어, 발열 측정기와 손소독존, 대형 공기청정기 등이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장소와 고객편의시설 방역상황을 꼼꼼히 둘러본 뒤,
 -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있는 만큼, 철저한 방역조치로 국민들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모범방역 환경을 위해 지속 노력해 줄 것”을 거듭 당부했다.

2021. 7. 30.

국토교통부 대변인